

묵주기도 원의 및 지향

환희의 신비

(1)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 (루가 1,26-38).

마리아께서 잉태한 아기는 누구인가?
하느님께서 왜 당신 외아드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마리아께서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
마리아와 같은 겸덕을 본받도록 기도하자.



(2)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 (루가 1,39-56).

마리아께서 먼 여행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기는 누구인가?
오늘까지 나를 이끄신 하느님의 섭리와 역사는 어떠했는가?
어떠한 섭리에도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는가?
마리아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3)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 (루가 2,1-20).

예수께서는 왜 외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는가?
예수께서는 왜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셨는가?
예수께서는 왜 목동들의 인사를 먼저 받으셨는가?
예수님의 탄생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정신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4)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드리심 (루가 2,21-38).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하느님께 드릴 때의 마음가짐은 어떠했겠는가?
사람들이 예수 아기에게서 '주님의 구원'을 보았을 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라는 예언자 시므온의 말을 들은 성모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우리도 마리아와 함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자.



(5)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 (루가 2,41-52).

예수님의 가족은 왜 성전에 가셨는가?
예수님의 첫째 사명은 무엇이었나?
예수님을 잃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순종하며 가정에서 사신 예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고통의 신비

(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 (루가 22,39-45).

예수님의 고민거리는 무엇이었나?
예수께서 수고 수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하느님께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의 기도를 요구하셨는가?
항상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2)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 (마르 14,55-65).

예수께서 매 맞으셔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나?
참으로 침 뱉음을 받고 매를 맞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왜 남에게서 허물 찾기를 좋아하는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남을 원망하기보다 인내하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3)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 (마태 27,27-31).

예수께서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무엇인가?
가시관의 수모와 아픔은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가 이웃의 기쁨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남에게 모욕을 당할 때, 오히려 그를 바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아량을 갖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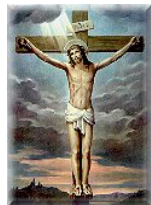
(4)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 (마르 15,6-15).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이 길을 가셨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5)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심 (요한 19,25-34).

십자가상에 죽으신 분은 누구인가?
이 비참한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의 순간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은총을 구하자.



영광의 신비

(1)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마태 28,1-10).

예수께서 수 차례에 걸쳐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신덕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2) 예수님께서 승천하심 (사도 1,6-11).

예수께서는 왜 승천하셨는가?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예수께서는 왜 다시 오시는가?
우리의 본고향을 그리워하며 망덕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3)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 (사도 2,1-13).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왜 성령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나는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밝은 지혜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웃을 하느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4)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 (묵시 21,1-8).

모든 이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같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셨는가?
나는 부끄럼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아름다우신 성모님을 생각하며 성모님을 본받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5)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 (묵시 12,1-5).

왜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상 모후의 관을 주셨는가?
마리아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추구하는 최상의 이상[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자신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자.



빛의 신비

(1)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 (마태3,13 - 17)

예수께서는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왔는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의 뜻을 음미해 보자.

세례성사로 다시 태어났음을 감사 드리자.



(2)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 (요한2,7-9. 11)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뜻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한신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3)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 (마태4,23-24)

예수께서는 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셨는가?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자유로운 의지로 하느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간구하자.



(4)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 (마르9,2-8)

예수님의 변모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이 주는 뜻은?

구름 속에서 들려 온 말씀의 뜻을 묵상해 보자.

주님의 거룩하신 변모에 놀라지 않는 참 신앙인이 되자.



(5)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 (마태 26,26-29)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근본 정신은?

하느님 나라가 오기까지는 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따로 주신 이유는?

성체성사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도록 기도하자.



‘묵주기도의 해’ 요일 배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영광	환희	고통	영광	빛의 신비	고통	환희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니다.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니다.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니다.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각 단의 신비 내용을 진정으로 묵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지향을 생각한다거나 성모송, 주님의 기도 등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향은 묵상 전에 세우고 생각해야지 묵상 중에 하면 역시 일종의 분심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을 암송하는 것은 이런 간단한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여 외움으로써 잡념을 쫓고 마음을 가라앉혀 기도와 묵상에 전념케 하려는 것이지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라는 것은 아니다.

묵주기도의 원칙은 15단을 모두 바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3도 ‘묵주기도’라 한다. 그래서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따라 온다.

- ① 묵주기도 15단의 1/3을 바치면 되지만, 5단을 계속 바쳐야 한다.
- ②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소리 내어 바쳐야 한다.
- ③ 공동으로 바칠 때는 지역에 따라 인정 받는 구원의 신비를 알리는 기도문(구원의 기도)을 외워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바칠 때엔 기도문을 반복하면서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으로 족하다. 묵주기도 중에서 7단으로 된 묵주가 있다. 이는 성모님의 칠고칠락을 묵상하면서 바치기 위한 것이다.

5단의 색이 각각인 5색 묵주는 각각 5대륙을 상징하며 세계 평화의 뜻을 나타낸다.

묵주기도의 영성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이다.

만약 묵주기도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라면, 왜 성모님 상(像) 중에 묵주를 들고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모님 상이 있겠는가?

만약 묵주기도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라면 성모님이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묵주기도를 성모님께 바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깊숙이 묵상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묵주기도는 오히려 성모님을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중심은 예수였고 성모님의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으므로

묵주기도의 모든 묵상은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

묵주기도 5단을 바칠 때 오는 은사

한대사 : 한 번 할 때마다 5년 은사,

함께 합송하면 10년 은사, 10월 중에는 7년 은사.

전대사 (매달 마지막 주일) : 세 번 계속해서 고해성사,

전대사 (로사리오축일과 8일간) : 고해성사, 영성체, 성체조배 및 묵주기도 5단